

성삼 한인 성당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2년 3월 13일



복음나누기

사순 제2주일(3월 13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
(루카 9,28 L-36)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72번 "다불산의 예수" 1,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당신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 주님, 저희를 참 진리로 이끌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 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28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29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었다. 30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31 영광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32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33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34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35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36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었다." (루카 9,29)

주님께서 산에서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이며 영광스런 모습으로 변하십니다. 이는 부활과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때 흰옷을 입으며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루카 9,35)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자 프랑수아 바리용 신부는 그의 저서에서 덴마크 태생의 이외르겐센이라는 사람이 쓴 "밀알의 우화" 라는 작품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밀알은 창고 안에서 완벽하게 행복하였다. 낙수 홈통도 없고, 습기도 없었으며, 함께 있는 한 무더기의 작은 친구들도 아주 착해서 다툼도 없었고, 그야말로 완벽하였다. ... 창고 속 밀알의 작은 행복이라고나 할까, ... 그는 하느님에게 감사한다. "주님, 당신이 제게 주신 것, 저를 제 창고 속에서 이토록 행복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부디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게 해 주십시오" ... 어느 날, 사람들이 밀알 더미를 수레에 싣고 들로 나간다.... 사람들이 막 갈아 놓은 땅에 도착한다. 그러고는 밀알 더미를 땅에 묻는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습기가 그의 속까지 파고든다.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다. "만일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진정한 하느님, 즉 그로 하여금 밀알의 상태에서 이삭의 상태로 변화하도록 하시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변화는 오로지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프랑수아 바리용, 심민화 옮김, 「흔들리지 않는 신앙」 생활성서, p64-67)

씨앗은 자기 안에 처음부터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씨앗의 죽음으로 탄생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은 죽음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스런 모습은 인간을 위한 십자가 수난과 죽음의 결과인 영광스러운 부활과 세상 마지막 날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표징인 것입니다. 한알의 밀알이 땅속에서 썩어 죽음으로써 새 생명이 탄생하듯이 영원한 생명인 영광스러운 부활도 죽지 않고서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즉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아에서 죽고 타인을 사랑하는 새로운 자아로 탄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삶은 죽음 안에 그대로 머무는 삶입니다. 사순시기, 이기적인 자아에서 죽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연습을 더욱 많이 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복음나누기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72번 "다볼산의 예수"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소공동체 역할배분 ②

◆ 서기의 역할

- ① 선정된 서기는 '소공동체 모임 기록지'를 준비하고 모임 진행 사항을 기록합니다.
- ② '소공동체 모임 기록지'를 모임 전에 미리 챙기고 지난 모임 때 작성한 회의록을 검토합니다.
- ③ 모임 전 반장과 진행자에게 지난 모임에 작성한 회의록을 1부씩 복사해 주어 미리 읽어 보도록 합니다. 다른 구성원들도 열람을 원할 경우 숫자만큼 복사해 나누어 줍니다.
- ④ 모임 당시 회의록을 꼼꼼히 작성합니다.
- ⑤ 나눔을 기록할 때는 가능한 무기명으로 하고, 개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지극히 사적이고 비밀적인 나눔은 기록하지 않습니다(모임 전 소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의견을 조율해 기록 수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⑥ 모임이 끝나면 회의록을 반장에게 제출해 확인하도록 합니다.
- ⑦ 회의록이 소공동체 구성원이 아닌 타인(타 모임 신자 혹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이들 등)에 의해 아무렇게나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복음나누기 진행자의 역할

- ① 복음나누기 7단계 진행 순서를 모임 전에 충분히 숙지합니다.
- ② 소공동체 모임의 진행이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청합니다.
- ③ 모임이 시작되면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또박또박 멘트를 읽어가며 진행합니다.
- ④ 자신이 먼저 나서서 기도, 성경낭독, 묵상나누기 등을 시작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⑤ 특히, 6단계에서 지난 주 활동 나눔 및 활동 계획 수립, 그리고 신앙상식 공부 시, 각 담당이 자신의 역할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예를 들어 선교, 봉사 활동 담당자의 활동 나눔 안내 등)

〈다음 호에 계속...〉